

김승수 시장, 폭염 속 예산 확보 나서

세종시 기획재정부 방문해 전주시 주요사업 증액·반영 위한 국가예산 활동 펼쳐

김승수 전주시장이 무더위 속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시범도시 조성과 드론 메카도시 기반조성 등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김 시장은 12일 전주시 국장급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2019년 국가예산 2차 심의 단계에 접어든 기획재정부를 방문, 국가예산 증점사업 반영을 위한 총력 대응을 했다.

이날 김 시장은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을 면담하고 문화예산과와 국토교통예산과, 산업정보예산과, 농업해양예산과 등 9개 부서를 차례로 방문, 전주시 주요사업 국가예산 증액 및 반영을 위해 사업을 설명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업은 △전주무형유산진흥복합단지 조성 △드론 메카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 △전북 중소

기업연수원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구축 △도시 숲을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 시범도시 조성 등 도시혁신성장 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이다.

김 시장은 기재부 예산심의가 마무리되는 오는 8월말까지 전북도 정치권 등과 함께 면밀한 국가예산 공조 시스템을 구축, 국가예산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 시장은 지난 11일에는 국회를 방문해 정운천 의원(전주, 바른미래당)과 정동영 의원(전주, 민주평화당), 홍영표 의원(인천,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과의 전담을 연고로 둔 국회의원에 건의사항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송효철 기자



김 시장은 12일 국장급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2019년 국가예산 2차 심의 단계에 접어든 기획재정부를 방문, 국가예산 증점사업 반영을 위한 총력 대응을 했다.

전 여친 감금·협박한 30대 징역 10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모텔에 가두고 흉기로 협박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5시에 전

북 익산시 송학동의 한 모텔 5층에서 A(35·여)씨에게 “다시 만나자. 그러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라며 흉기로 협박, 5시간 동안 모텔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베란다 난간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숨졌다.

당시 이씨는 A씨가 추락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119구조 등 신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모텔을 빠져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의 집을 찾아가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스톱키가 두려웠던 A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는 이씨의 말에 속아 변을 당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감금과 협박 사실은 인정된 반면 “인과관계가 없고 A

씨의 사망을 예측하지도 못했다”라며 “A씨의 사망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자친구를 극심한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베란다 난간에 매달렸을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추락한 뒤 현장에서 도주한 점, 피해자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위기청소년에게 자격증 취득 기회 제공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50만원 상당 장학증서 수여 궁전요리제과제빵미용학원, 위기청소년에게 빵·케이크 전달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지원에 힘써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궁전요리제과제빵미용학원이 위기청소년 자격증 취득을 돕기로 했다.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궁전요리제과제빵미용학원은 12일 전주시청소년통합지원체계 1388청소년지원단 소속의 청소년에게 150만원 상당의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학원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5회에 걸쳐 1388청소년지원단 무료 지역연계사업인 ‘사랑의 빵 나누기’를 통해 빵과 케이크를 위기 청소년과 복지사각지대 청소년들에게 전달해왔다.

정혜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1388청소년지원단의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전주시 위기청소년들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연계에 힘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한편, 전주시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1388청소년지원단은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조직으로 하부지원단인 발견·구조지원단, 의료·법률지원단, 복지지원단, 상담·멘토지원단 총 96개 기관, 217명으로 구성돼 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궁전요리제과제빵미용학원은 12일 전주시청소년통합지원체계 1388청소년지원단소속의 청소년에게 150만원 상당의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12일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36기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 몽골8팀 단원과 함께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했다.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 뜻깊은 봉사활동 한옥마을 일원서 가두캠페인·플래시몹

황의옥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는 지난 12일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36기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 몽골8팀 단원과 함께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했다고 밝혔다.

봉사단은 몽골 해외봉사활동을 위해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들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1회용품줄이기 공동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몽골로 출국하기 하루전 오목대에서 경기전까지 가두캠페인을 했다.

경기전까지 이동한 단원들은 자원봉사 주제곡 ‘행복합니다’로 플래시몹을 펼쳐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행사 관계자는 “지난 5일 전주시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이 1회용

품 줄이기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공동선언’과 관련, 전주시자원봉사센터도 이에 동참하기 위해 계획하게 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전주 시민들이 인식개선과 더 나아가 이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 이사장은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지역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지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활동은 그런취지에서 단원들에게는 의미있는 활동일과 동시에 시민들에게는 공동행동이 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어 1회용품줄이기 문화적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정현덕-김민경 부부, 딸 두 돌 기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전주 금암동에 거주하는 정현덕 김민경 부부는 지난 12일 덕진구청을 방문, 저소득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 성금은 이들 부부가 딸 정호연의 두 번째 생일을 맞아 뜻깊게 사용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아이가 자라 나눔에 동참하는 따뜻한 이웃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했다.

정씨 부부는 작년 호연이의 첫 돌에도 돌잔치를 대신하여 그 비용을 성금으로 기탁하는 등 훈훈한 온정으로 주변 이웃들의 귀감이 된 바 있다.

김민경 씨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딸 호연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하며, 이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우리 아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조금

이라도 더 행복하고 따뜻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기탁한다”며 “앞으로도 아이의 생일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나눔을 꾸준히 실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연수 덕진구청장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하기만도 바쁜 각박한 세대에 정성을 모아 소외된 이웃을 돕고자 하는 이 가족의 아름다운 마음이 금보다 귀한 보물”이라며 지역 내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여 귀중히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호연 김민경 가족의 후원금은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기증된 귀와 분유 등 육아용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